

研究論文

## 김수영 시의 '부정어' 연구

김 중 훈\*

I. 서론	V. '말다' /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
II. 부정어의 유형과 연구 범위	VI. 결론
III. '아니' 계열의 부정어	<참고문헌>
IV. '없다' 계열의 부정어	<국문요약>

### I. 서론

이 글은 김수영 시에 나타난 부정어를 대상으로 유형을 나누고 특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언어가 지닌 부정어의 속성과 기능에 주목한다는 뜻과 아울러, 시를 포함한 현대 예술의 핵심 미학이 부정성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는 전제가 여기에는 깔려 있다. 즉 김수영의 시에서 추출되는 부정성은 현대 미학의 부정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이 연관성은 시에 나타난 부정어를 매개로 뚜렷이 드러난다는 가설이 이 글의 논의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시를 쓰기 위해서는 여직까지의 시에 대한 思辨을 모조리 파산을 시켜야 한다. 혹은 파산을 시켰다고 생각해야 한다. 말을 바꾸어 하자면, 詩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 연세대학교 BK21 박사후 연구원, 현대문학 전공(splive@chol.com).

<온몸>으로 밀고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시도 시인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도 여러분도 시작하는 것이다. 자유의 과잉을, 혼돈을 시작하는 것이다. 모기소리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는 것이다. 모기소리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그것을-1)

김수영은 자신의 대표 산문 중 하나인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온몸’의 시학을 전개하며 부정성의 문제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인용문은 새로운 시를 쓰기 위해서 이전의 시에 대한 사변(思辨)을 ‘파산’시킬 것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그에게는 전대와외의 단절이 새로움의 조건이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시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자유’의 과잉과 ‘혼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는 질서보다는 파괴와 혼돈을 중시했다. 양자택일의 문제로 인식되기 쉬운 질서와 혼돈의 대립은 사실상 전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혼돈을 추스르는 것이 질서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혼돈이다. 이 선후 관계는 긍정과 부정의 관계와 겹친다. 김수영이 온몸의 시학을 앞세워 파괴와 혼돈을 주장할 때 부정성이야말로 시쓰기의 최소 원칙이라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김수영의 부정성은 근대 이후 삶을 관통하는 부정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현대는 믿고 의지할 만한 이치가 사라진 시대이다.<sup>2)</sup> 하지만 해답이 없는 시대라고 해서 질문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선의 것이 없다고 해서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용인될 수 없는 까닭이다. 20세기 이후 사람들의 최소 도덕은 최악을 피하는 것이며, 최선의 도덕은 해답을 바라지 않고 질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전에 규정된 것에 긍정하지 않고 질문을 한다. 전제된 것의 뜻과 속성, 그리고 위상 역시 믿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수영 식으로 말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파괴의 과정이자 혼돈의 상태이자 자유의 이행이다.

김수영 시에 관한 논의가 사후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까닭도 현대의 부정성을 그가 적극적으로 시와 산문에서 개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

1)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김수영 전집 2 산문』(민음사, 1981), 250, 254쪽.

2) 게오르그 루카치(저)/반성완(역), 『소설의 이론』(김철당, 1985), 29쪽 참조.

3) 김수영 시의 부정성에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용식, 「김수영 시론 연구: ‘현대성’과 ‘부정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1(상허학회, 2003); 장석원, 「김수영 시의 ‘새로움’ 연구: 전위

글은 이 부정성에 관한 추정을 뚜렷한 사실로 바꾸고자 김수영 시에 담겨 있는 '부정어'에 주목하였다. '아니다' '부정하다'와 같은 부정어가 시의 부정성을 대표한다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부정어가 쓰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정성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어에 부정성이 없을 수는 없다. 시어가 생성하는 의미들은 늘 일반 언어보다 많지만, 늘 일반 언어를 기반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sup>4)</sup> 흔히 시의 언어는 모호성을 띠고 있고 일반 언어는 명확성을 지향한다고 한다. 일견 반대의 속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의 언어는 일반 언어의 기능을 결코 배척할 수 없다. 시의 언어가 일반 언어로 이루어져 있듯이 시의 기능도 일반 언어의 기능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의미가 생성된다. 일반 언어에서 도출되는 부정성은 그러므로 김수영 시의 부정성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II. 부정어의 유형과 연구 범위

이 글은 개정판 『김수영 전집 1 시』(민음사, 2003)에 의거해 김수영의 시를 176편으로 설정했다. 전집이 발간된 이후, '발굴'된 시들도 있다. 계간 《창작과비평》과 《서정시학》, 『김수영 육필시고 전집』은 유고나 전집에 누락된 시들을 수록하였다.<sup>5)</sup> 그러나 이를 김수영 시의 정본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김수영 시의 정본으로 여겨져 온 『김수영 전집 1 시』를 분석의 기초 자료로 설정했다.

김수영의 시 176편에 수록된 시어 중 부정어로 분류할 수 있는 시어들은 약 40

---

의식과 부정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8(한국시학회, 2003); 장만호, 「김수영 시의 변증법적 양상: 4·19와 5·16의 시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0(민족문화연구원, 2004).

- 4) 김수영 시에 나타난 기호의 일반적인 의미와 양상에 주목하여 시의 특성을 도출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장석원, 「김수영 시의 인칭대명사 연구: '나'와 '너'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15(한국시학회, 2006); 주영중, 「김수영시에 나타난 시각적 경험의 발현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13(한국근대문학회, 2006).
- 5) 《서정시학》, 2005년 여름호; 《창작과비평》, 2008년 여름호; 이영준(편), 『김수영 육필시고 전집』(민음사, 2009).

개이다. 이들은 ‘일정하지 않거나 정해지지 않다’의 뜻을 지닌 ‘부정(不定)’, ‘바르지 못함’의 뜻을 지닌 부정(不正), ‘그렇지 않다고 단정함’을 뜻을 지닌 부정(否定)의 의미를 중심으로 상정한 것이다.<sup>6)</sup> 이들의 사전적인 뜻을 종합하면 ‘부정어’의 공통점은, 첫째 부정할 대상이 기존에 존재할 것, 둘째 그 성격이나 위상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된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의 대상을 인정하되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과정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까지도 이 글에서는 ‘부정어’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 글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不/否)’나 ‘무(無)’나 ‘비(非)’나 ‘반(反)’ 등의 접두사가 포함된 어휘들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관용어로 굳어진 어휘들은 부정어에 포함시켰다. ‘부정’, ‘불온’, ‘반항’과 같은 어휘들은 이에 해당한다.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빈도수/편수’ 항목의 앞 숫자는 부정어의 출현 횟수를 의미하고 뒤 숫자는 수록 편수를 의미한다.

순위	시어	빈도수/편수	순위	시어	빈도수/편수	순위	시어	빈도수/편수	순위	시어	빈도수/편수
1	않다	250/108	11	말다1	9/8	18	방해하다	2/2	30	반역성	1/1
2	없다	172/77	12	잘못되다	8/2	18	부정	2/2	30	반역하다	1/1
3	아니다	88/56	13	틀리다	7/3	18	부정하다	2/2	30	거부	1/1
4	안	69/27	14	못	6/5	18	아녜요	2/2	30	배반	1/1
5	없이	47/28	15	방해	5/3	18	아니하다	2/2	30	배반하다	1/1
6	아니	37/30	16	거역하다	3/2	18	없애다	2/2	30	불온	1/1
7	말다2	36/18	16	반항	3/2	18	잘못	2/2	30	아뇨	1/1
8	못하다	32/23	18	거절하다	2/2	18	반항하다	2/1	30	아니야	1/1
9	아냐	15/7	18	그릇되다	2/2	18	저항시	2/1	30	저항	1/1
10	안하다	10/6	18	반대하다	2/2	30	반란성	1/1	30	don't	1/1

김수영 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부정어는 ‘않다’이다. 107편에 250번 등장하며 수치상으로는 김수영 시편의 절반을 상회한다. 100번 이상 등장하는 시어는 ‘않다’와 ‘없다’이며 100번 이하 10번 이상 등장하는 시어는 ‘아니다’, ‘안’, ‘없이’, ‘말

6) 이 글의 부정어와 관련된 사전적 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stdweb2.korean.go.kr/main.jsp), 『민중엡센스국어사전』(민중서림, 2009) 등을 참조하여 변용한 것이다.

다 '아니' '못하다' '아냐' '안하다' 등이다. 다음 장부터 분석할 시어들은 10회 이상 등장한 부정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는 활용형이 포함된 것이다. 가령 '않다'의 수치는 '않고' '않으니' 등이 출현한 횟수까지 포함된 것이다.

김수영의 시에서 부정어가 많이 등장하는 시편은 「조국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이다. 그의 시에서 길이가 긴 시편들 중 하나인 이 시에서 부정어는 22번 쓰였다. 부정어가 중복된 다른 시들도 대개 분량이 긴 것으로 보아, 김수영의 시에 쓰이는 부정어는 사유를 전개시키는 촉매제의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부정어가 많이 등장하는 시편들로 순위별로 제시한 표이다.

순위	제목	편당 빈도수	시어(빈도수)
1	「조국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	22	말다2(2), 못2(2), 못하다(2), 반항(2), 아니(1), 아니다(3), 않다(3), 없다(6), 없이(1)
2	「엔카운터 誌」	18	말다2(1), 아냐(1), 안(5), 안하다(1), 않다(6), 없다(1), 틀리다(3)
3	「九羅重花」	16	아니다(12), 않다(2), 없다(1), 없이(1)
4	「구슬픈 육체」	15	못하다(1), 아니(1), 아니다(4), 않다(3), 없다(4), 없이(2)
5	「이놈이 무엇이지?」	14	안(4), 없다(9), don't(1)
5	「체임스 평」	14	아네요(1), 아니(2), 안(1), 않다(2), 없다(7), 잘못(1)
7	「거짓말의 어운 속에서」	13	못하다(1), 안(4), 않다(5), 없다(3)
7	「美濃印札紙」	13	아니다(1), 안하다(2), 않다(7), 없다(3)
7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밭짓개로 하자」	13	못하다(1), 아니다(1), 안(1), 않다(3), 없애다(1), 없다(3), 없이(3)
10	「기자의 정열」	12	말다2(4), 아니(1), 아니다(2), 않다(2), 없다(3)
10	「장시1」	12	아니다(1), 안(5), 않다(5), 없다(1)
10	「헬리콥터」	12	말다2(1), 못하다(1), 아니다(1), 않다(3), 없다(5)
10	「VOGUE야」	12	아냐(5), 아니다(1), 안하다(4), 않다(1), 없다(1)

위의 시들은 1950년대 시편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김수영 시의 창작 시기전체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다. 대개는 한 편의 분량이 비교적 긴 시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부정어를 대상으로 출현 횟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수영 개별 시편의 순위는 위와 같지만, 단일한 표제어만을 고려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때의 부정어 시어는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같은 형태의 시어가 반복되며 리듬을 형성하기도 한다. 비교적 단형의 시에도 단일한 표제어의 반복이 등장하는 까닭이 이 운율의 고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시는, ‘아니다’의 기본형과 활용형이 열두 번 등장하는 「九羅重花」, ‘없다’의 기본형과 활용형이 아홉 번 등장하는 「이놈이 무엇이지?」, ‘안’이 여덟 번 등장하는 「등나무」, ‘말다’의 기본형과 활용형이 여덟 번 등장하는 「봄 밤」, ‘않다’의 기본형과 활용형이 일곱 번 등장하는 「美濃印札紙」와 「절망」, ‘없다’의 기본형과 활용형이 일곱 번 등장하는 「제임스 땡」, ‘잘못되다’의 기본형과 활용형이 일곱 번 등장하는 「세계일주」 등이다.

10회 이상 등장하는 김수영 시의 부정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니’의 계열과 ‘없다’의 계열과 ‘말다’/‘못하다’ 계열의 부정어가 그것이다. ‘않다’는 ‘아니 하다’의 준말이고 ‘아니다’는 ‘아니’의 어미가 붙은 것이고 ‘안’은 ‘아니’의 준말이다. ‘없다’와 ‘없어’는 접사와 그에 따른 품사가 차이가 있을 뿐 그 의미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말다’와 ‘못하다’는 행위의 중단이나 수준의 미달이라는 뜻으로 함께 묶을 수 있다. ‘말다’는 기본형과 활용형이 포함되며, ‘못하다’는 사전적인 뜻 이외에 김수영이 ‘못하다’로 쓴 ‘못 하다’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말다’의 경우 사전에 의하면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말다’의 뜻은 ‘하던 일이나 할 일을 그만두다’이며, 두 번째 ‘말다’의 뜻은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대로 끝내 실현됨을 나타내는 말’이다.<sup>7)</sup> 원래는 10위 안에 들어 있는 이 두 번째 ‘말다’, 즉 ‘말다2’만이 이 글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만, 빈도수가 모자라는 ‘말다1’도 기호표현이 같다는 이유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니’는 부정의 뜻을 문자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없다’는 거기에 더불어 결여의 의미까지 더한다. ‘말다’/‘못하다’는 앞서 말했듯 행위의 중단이나 수준의 미달이란 뜻을 공유한다. 이 세 가지 부정어의 특성과 세부적인 차이는 뒷장의 항목을

7) ‘말다2’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다’와 ‘그 반대로 끝내 실현되다’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끝내 실현됨’의 ‘말다2’는 이 글에서 다루는 부정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구체적인 진술과 해당 구절은 ‘5. ‘말다’/‘못하다’ 계열의 부정어’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룬다. 이 글은 각 장에서 먼저 해당 계열의 부정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본 뒤 김수영 시에 나타난 계열별 부정어의 구체적인 빈도수와 편수를 표로 제시하였다. 그 다음 부정되는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고 해당 시어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시편을 선택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밟았다.

### III. '아니' 계열의 부정어

'아니'는 용언 앞에 쓰여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부정어의 전형적인 어휘이다. 이 글은 '아니'가 축약되거나 삽입된 형태의 부정어를 '아니' 계열의 부정어로 설정하였다. 김수영의 시에 쓰인 '아니' 계열의 부정어는 '않다' '아니다' '안' '아니' '아냐' '안하다' '아네요' '아니하다' '아뇨' '아니야' 등이다. '않다'는 '아니 하다'의 준말이고 '아니다'는 '아니'에 평서형 종결 어미가 붙은 것이다. 그 밖의 시어들도 '아니'의 형태가 삽입되어 있다. 이 중 김수영의 시에 10 번 이상 등장하는 시어는 표에 제시한 것과 같다.<sup>8)</sup>

순위	시어	빈도수/ 편수	출전
1	않다	250/108	「65년의 새해」(1), 「가다오 나가다오」(3), 「가옥 찬가」(1), 「강가에서」(3), 「거대한 뿌리」(2), 「거리1」(3), 「거리2」(2),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5), 「檄文」(1), 「광야」(1), 「九羅重花」(2), 「구슬픈 육체」(3), 「국립도서관」(1), 「금성라디오」(1), 「금지된 날」(3), 「기도」(5), 「기자의 정열」(2), 「꽃잎2」(1), 「꽃잎3」(2), 「나비의 무덤」(2), 「나의 가족」(2), 「너는 언제부터 세상과 배를 대고 서기 시작했느냐」(1), 「너를 잃고」(4), 「누

8) 표의 '출전' 항목에는 해당 부정어가 수록된 시편들의 제목이 들어 있다. 시편들은 '가나다' 순으로 제시했으며, 시 제목 뒤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시편에 등장하는 해당 부정어의 출현 횟수를 뜻한다. 동명의 다른 시는 창작 년도를 제시하여 구분하고자 했다. 또한 '총계' 부분의 '빈도수/편수' 중 '편수'는 해당 부정어의 출현 편수의 총합에서 중복된 편수를 제외한 것이다. 가령, '않다'와 '아니다'와 '아니'가 한 번씩 출현하고 있는 「65년의 새해」는, 중복을 포함하면 '아니' 계열의 부정어에서 세 번 등장한 것이지만 중복을 제외하면 한 번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빈도수의 총계는 해당 부정어의 빈도수를 더한 수치와 같지만, 편수의 총계는 해당 부정어의 편수를 더한 수치와 차이가 난다. 이후 제시하는 표에도 이 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p>이야 장하고나」(1), 「달나라의 장난」(1), 「달밤」(1), 「더러운 향료」(1), 「도적」(4), 「도취의 피안」(3), 「冬麥」(3), 「라디오 계」(2), 「만시지탄은 있지만」(2), 「만용에게」(2), 「滿洲의 여자」(2), 「말(1958)」(1), 「말(1964)」(1), 「말복」(1), 「먼지」(3), 「모르지?」(2), 「모리배」(1), 「美濃印札紙」(7), 「미숙한 도적」(4), 「미인—Y여사에게」(1), 「바뀌어진 지평선」(4), 「반달」(4),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1), 「백의」(4), 「伏中」(1), 「봄밤」(1), 「부탁」(2), 「비」(1), 「사랑」(1), 「사랑의 변주곡」(2), 「死靈」(4), 「사무실」(2), 「사치」(1), 「서시」(1), 「설사의 알리바이」(2), 「性」(2), 「술과 어린 고양이」(1), 「시(1964)」(2), 「시골 선물」(3), 「쌀난리」(2), 「아버지의 사진」(2), 「아픈 몸이」(6), 「愛情遲鈍」(2),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3), 「엔카운터 誌」(6), 「여름 뜰」(4), 「여름 아침」(1), 「旅愁」(2), 「여편네의 방에 와서」(2), 「靈交日」(2), 「영롱한 목표」(3), 「영사관」(2), 「예지」(1), 「우리들의 웃음」(3),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3), 「웃음」(1), 「원효대사」(5), 「육법전서와 혁명」(2),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2), 「이 한국문학사」(2), 「이혼 취소」(1), 「자장가」(1), 「장시1」(5), 「장시2」(4), 「적2」(1), 「轉向記」(1), 「절망(1965)」(7), 「제임스 핑」(2), 「조국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3), 「중용에 대하여」(2), 「체소발 가에서」(1), 「초봄의 뜰 안에」(1), 「토끼」(1), 「파발 가에서」(1), 「파차마 바람으로」(1), 「관문점의 감상」(2), 「瀑布」(3), 「하…… 그림자가 없다」(6), 「헬리콥터」(3), 「현대식 교량」(3), 「휴식」(2), 「H」(4), 「PLASTER」(1), 「VOGUE야」(1), 「X에서 Y로」(1)</p>
3	아니다	<p>「65년의 새해」(1), 「가옥 찬가」(1), 「거리1」(1), 「거리2」(4), 「거미잡이」(2), 「광야」(1), 「九羅重花」(12), 「구름의 파수병」(1), 「구슬픈 육체」(4), 「금지된 날」(1), 「기자의 정열」(2), 「꽃잎1」(2), 「꽃잎2」(1), 「꽃잎3」(2), 「나가타 겐지로」(2), 「나의 가족」(1), 「너는 언제부터 세상과 배를 대고 서기 시작했느냐」(2), 「네이팜 탄」(2), 「누이야 장하고나」(4), 「달나라의 장난」(1), 「도적」(2), 「도취의 피안」(1), 「돈」(1), 「마케팅」(2), 「만시지탄은 있지만」(2), 「滿洲의 여자」(1), 「美濃印札紙」(1), 「미스터 리에게」(1), 「미인—Y여사에게」(1),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1), 「백의」(1), 「사랑의 변주곡」(2), 「死靈」(2), 「사무실」(1), 「서책」(1), 「性」(1), 「시골 선물」(1), 「식모」(2), 「싸리꽃 핀 별관」(1), 「아버지의 사진」(4), 「연기」(1), 「영사관」(1), 「우리들의 웃음」(3),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1),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1), 「이 한국문학사」(1), 「이혼 취소」(1), 「장시1」(1), 「조국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3), 「중용에 대하여」(2), 「토끼」(1), 「풍뎅이」(2), 「피아노」(1), 「헬리콥터」(1), 「황혼」(2), 「VOGUE야」(1)</p>
4	안	<p>「&lt;4·19&gt;시」(4), 「가다오 나가다오」(2),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4), 「그 방을 생각하며」(3), 「금성라디오」(1), 「꽃」(1), 「꽃잎1」(1), 「꽃잎3」(1), 「나는 아리조나 카보이야」(2), 「도적」(2), 「등나무」(8), 「라디오 계」(4),</p>



			「만용에게」(2), 「滿洲의 여자」(5), 「먼지」(2),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 서」(1), 「엔카운터誌」(5), 「여름 밤」(1), 「旅愁」(2),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1),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1), 「이놈이 무엇이지?」(4), 「이혼 취소」(3), 「장시」(5), 「轉向記」(1), 「제임스 멍」(1), 「관문점의 감상」(2)
6	아니	37/30	「65년의 새해」(1),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1), 「강가에서」(1), 「구슬픈 육체」(1), 「기자의 정열」(1), 「나가타 겐지로」(2), 「나의 가족」(1), 「달나라의 장난」(2), 「도적」(2), 「라디오 계」(2), 「마케팅」(2), 「만용에게」(1), 「말복」(1), 「서책」(1), 「性」(1), 「시(1961)」(1), 「아픈 몸이」(1), 「여름 뜰」(1), 「靈交日」(1), 「육법전서와 혁명」(1), 「이 얼굴은」(1), 「자장가」(1), 「轉向記」(1), 「제임스 멍」(2), 「조국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1), 「죄와 벌」(1), 「중용에 대하여」(1), 「과자마 바람으로」(1), 「관문점의 감상」(1), 「현대식 교량」(2)
9	아냐	15/7	「만시지탄은 있지만」(1), 「伏中」(1), 「마케팅」(3), 「滿洲의 여자」(2), 「H」(2), 「엔카운터誌」(1), 「VOGUE야」(5)
10	안하다	10/6	「가다오 나가다오」(1), 「冬麥」(1), 「美濃印札紙」(2), 「엔카운터誌」(1), 「전화 이야기」(1), 「VOGUE야」(4)
총계	‘아니’	469/134	

총 열 개의 ‘아니’ 계열의 부정어 중 ‘않다’ ‘아니다’ ‘안’ ‘아니’ ‘아냐’ ‘안하다’ 여섯 개의 시어는 김수영의 시에서 열 번 이상 출현한다. 열 번 이상 등장하는 시어들이 총 열 개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활용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않다’ ‘아니다’ ‘안하다’ 총 세 개의 시어로서 실제 텍스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이들 활용 형태의 총 묶음이 ‘아니’ 계열의 부정어 중 높은 순위로 등재하게 한 것이다.

김수영 시 전체에서 ‘아니’ 계열의 부정어가 보이는 높은 빈도수는 부정의 대상이 지닌 성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매우 다양한 성격의 대상들이 ‘아니’에 의해 부정의 상태에 놓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편의 시에서 빈번히 출현할 경우 부정어는 반복을 이루어 리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동일한 구조의 구문 형태를 유도하여 부정하는 대상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그 대상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한다. 한 편에 동일한 형태의 부정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편은, ‘아니다’의 기본형과 활용형이 열두 번 등장하는 「九羅重花」, ‘안’이 여덟 번 등장하는 「등나무」, ‘않다’의 기본형과 활용형이 일곱 번

등장하는 「美濃印札紙」와 1965년의 「절망」을 꼽을 수 있다. 이 시들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은 그가 무엇을 부정하는지, 무엇이 부정하며 남은 공백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꽃 꽃 꽃/부끄러움을 모르는 꽃들/누구의 것도 아닌 꽃들/너는 너가 먹고사는 물의 것도 아니며/나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지금 마음 놓고 고즈넉이 날개를 펴라/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마당은 아닐지나(그것은 「골고다」의 언덕이 아닌/현대의 가지철망 옆에 피어 있는 꽃이기에)//물도 아니며 꽃도 아닌 꽃일지나/너의 숨어 있는 인내와 용기를 다하여 날개를 펴라//물이 아닌 꽃/물같이 얽은 날개를 펴며/너의 무게를 안고 날아가려는 듯//너가 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사의 線條뿐/그러나 그 비애에 찬 선조도 하나가 아니기에/너는 다시 부끄러움과躊躇를 품고 숨 가빠하는가//결합된 색깔은 모두가 얽은 것이지만/설움과 힘찬 미소와 더불어 관용과 자비로 통하는 곳에서/너가 사는 얽은 세계는 자유로운 것이기에/생기와 신중을 한 몸에 지니고//사실은 벌써 滅하여 있을 너의 꽃잎 위에/이중의 봉오리를 맺고 날개를 펴고/죽음 위에 죽음 위에 죽음을 거듭하리/구라중화

— 「九羅重花」(1954년 부분<sup>9)</sup>)

시는 “저것이야말로 꽃이 아닐 것이다/저것이야말로 물도 아닐 것이다”의 부정 표현으로 시작하다가 7연 인용 부분에 도달한다. 즉, 부정어는 1연에 두 번 출현했다가 잠복기를 거쳐 7연부터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닌” “아니며” “아니고” “아니기에” “아닐지나” “아닌” “아니며” “아닌” “아닌” “아니기에” 등 7-9연에 걸쳐 열 번 출현하는 ‘아니’ 계열의 부정어들은 뒷부분만 제외하고는 앞의 형태와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아니’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김수영은 시의 리듬이 단조로움에 빠져드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부정하고 있는 대상과 대안의 제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9) 이 글에서 인용하는 김수영 시의 표기는 개정판 『김수영 전집 1 시』(민음사, 2003)를 따르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판 『김수영 전집 1 시』(민음사, 1981)를 참조하여 한자를 노출시켰다. 시 본문의 ‘/’는 행표시이며, ‘//’는 연표시이고 밑줄은 강조하는 표시이다. 이 세 표시는 인용자가 한 것이다.

‘구라중화’, 즉 에피세트에 밝힌 것처럼 ‘글라디올러스’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고 말한다. 진술을 따르면 그것은 수분을 섭취하며 자라지만 물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어떤 이가 키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유 주체를 부정한 다음에 그가 다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사물과 말이 맺는 관계의 필연성이다. 그는 그 꽃을 “물도 아니며 꽃도 아닌 꽃일지나”라고 말한다. 구라중화는 꽃이 아니게 되면서 통념 밖으로 빠져 나온다. “날개를 펴”는 자유가 생긴 것이다. 이때의 자유는 기존의 관계, 특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획득된다. “용기와 인내”로써 관습의 영역을 탈피했으나, 그 꽃을 다시 규정하는 새로운 말이 무엇인지는 다시 불문에 부쳐진다. 단지 규정을 ‘속박’으로 보고, 거기에서의 이탈을 ‘자유’라고 할 뿐이다. 기존의 것을 부정하되, 새로운 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써, 그는 이 꽃에 자유를 부과하고 있다. 날개를 단 꽃인 ‘구라중화’는 그렇게 시의 마지막에 부정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때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근거는 “현대의 가시 절망”이다. 부정하는 근거에 ‘현대성’이 놓여 있는 것이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곰팡이 곰팡이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바람은 떠 데에서 오고/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 「절망」(1965년)

위의 시는 ‘않다’의 활용이 일곱 번 반복되는 1965년 작 「절망」이다. 단 한 번의 “않은”을 제외하고는 모두 “않는”의 형태로 부정어가 시에 제시되어 있다. 김수영의 시에서 짧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절망」은 부정어의 반복뿐만이 아니라 ‘A는 A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구문 구조의 반복도 이뤄진다. A에 해당하는 시어들, “풍경” “곰팡이” “여름” “속도” “졸렬과 수치” “절망” 등은 ‘반성하다’라는 성찰의 의미를 띤 어휘의 주어와 목적어이다. 이들이 ‘반성하다’의 주어와 목적어가 된다는 것은 문장 층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목을 받는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감상하는 위치에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절망」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로 부정한 뒤 오는 질문, 즉 ‘그렇다면 누가 반성

하는가'의 해답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부정 뒤의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대안이 들어설 자리에는 부정어가 없거나 부정어의 형태가 다른 구문 “바람은 판 데에서 오고”와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가 있다. 이 ‘판 데’와 ‘예기치 않은 순간’은 대안이 반성의 사태 안에서가 아니라 뜻 밖에, 우연히, 사태 밖에서 오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반성하는 어떤 것도 절망의 상황을 스스로 타개할 수 없다. 부정은 있으되 대안과 해결이 없는 것이 김수영 시에 나타난 부정의 속성이다. ‘아니’ 계열의 부정어는 김수영 시에 가득 찬 이 미해결의 부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상으로 ‘아니’ 계열의 부정어를 살펴보았다. 이 부정어는 김수영의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김수영은 이미 전제된 것을 부정하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써 시를 부정의 상태로 머물게 하였다. 지속되는 부정의 상태는 자유로움의 다른 표현이다. 「구리중화」는 부정의 상태와 자유로움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부정의 근거로 ‘현대성’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1965년 작 「절망」에서도 부정어는 반복되어 출현하며 지속적인 부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김수영 시에서 보이는 ‘부정어’의 기능이라는 것을 이 시 역시 보여준다.

#### IV. ‘없다’ 계열의 부정어

‘없다’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곳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다’ ‘가지지 않다’ ‘생겨나거나 일어나지 않다’ 등이다. 기존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속성을 부정하는 ‘아니’ 계열의 부정어와 달리, ‘없다’ 계열의 부정어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이 점은 현존을 의미하는 ‘있다’의 반대말로 ‘없다’가 쓰인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없다’는 근원적인 부정이라고 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없다’ 계열의 부정어를 기본형인 ‘없다’와 그 활용형, 사동의 의미가 삽입된 ‘없애다’, 그리고 부사로 전성한 ‘없이’로 설정하였다. ‘아니’ 계열의 부정어와 견주어 ‘없다’ 계열의 부정어는 그 범위가 좁다. 이 중 김수영의 시에 10번 이상 등장하는 표제어는 ‘없다’와 ‘없이’이다.

순위	시어	빈도수	출전
2	없다	172/77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4), 「가다오 나가다오」(3), 「가옥 찬가」(1), 「강가에서」(2), 「거대한 뿌리」(1), 「거리1」(2), 「거리2」(3),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3), 「九羅重花」(1), 「구름의 파수병」(3), 「구슬픈 육체」(4), 「궁지의 날」(1), 「기자의 정열」(3), 「꽃잎3」(1), 「나비의 무덤」(1), 「나의 가족」(3), 「너를 잃고」(4), 「네이팜 탄」(3), 「누이야 장하고나」(1), 「달나라의 장난」(1), 「달밤」(3), 「만시지탄은 있지만」(3), 「말(1958)」(3), 「말(1964)」(1), 「먼지」(3), 「모리배」(2), 「美濃印札紙」(3), 「미숙한 도적」(1), 「미스터 리에게」(1), 「반달」(1), 「반주곡」(1), 「방안에서 익어 가는 설움」(1), 「백지에서부터」(1), 「付託」(6), 「사무실」(2), 「서시」(2), 「수난로」(2), 「술과 어린 고양이」(2), 「쌀난리」(1), 「아버지의 사진」(2), 「아픈 몸이」(1), 「愛情遲鈍」(3), 「엔카운터誌」(1), 「여름 밤」(2), 「여름 아침」(1), 「旅愁」(3), 「연기」(3), 「靈交日」(1), 「영롱한 목표」(1), 「우리들의 웃음」(3),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싹개로 하자」(3), 「육법 전서와 혁명」(2),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1), 「이 한국문학사」(1), 「이놈이 무엇이지?」(9), 「이혼 취소」(1), 「잔인의 초」(1), 「장시1」(1), 「적」(5), 「적1」(2), 「적2」(1), 「전화 이야기」(1), 「제임스 땡」(7), 「조국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6), 「조그마한 세상의 지혜」(1), 「중용에 대하여」(2), 「토끼」(1), 「파리와 더불어」(1), 「판문점의 감상」(1), 「瀑布」(1), 「하…… 그림자가 없다」(4), 「헬리콥터」(5), 「황혼」(1), 「후란넬 저고리」(5), 「휴식」(1), 「H」(1), 「VOGUE야」(1)
5	없이	47/28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1), 「강가에서」(3), 「거리1」(2), 「九羅重花」(1), 「구름의 파수병」(3), 「구슬픈 육체」(2), 「그 방을 생각하며」(2), 「꽃잎3」(3), 「너를 잃고」(1), 「네이팜 탄」(1), 「도취의 피안」(2), 「돈」(1), 「라디오 계」(2), 「만용에게」(2), 「미숙한 도적」(1), 「백의」(2), 「사무실」(1), 「시골 선물」(1), 「아버지의 사진」(1), 「旅愁」(1), 「연기」(1), 「우리들의 웃음」(1),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싹개로 하자」(3), 「장시2」(2), 「조국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1), 「중용에 대하여」(1), 「瀑布」(4), 「헬리콥터」(1)
총계	‘없다’	219/85	

‘없다’의 경우 김수영의 시 72편에서 172번 등장하고, ‘없이’는 28편에서 47번 등장한다. ‘없다’는 ‘아니’ 계열의 부정어 중 최고 빈도수를 점유했던 ‘없다’(250/108)나 차 순위를 차지했던 ‘아니다’(88/56)와 견주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하지만 김수영의 전체 부정어 계열에서 ‘없다’와 ‘없이’는 2위와 5위를 차지한다.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작은 비중이 아닌 것이다.

김수영이 부재를 인식하는 대상은 범주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자연어부터 인공어까지, 구상어부터 추상어까지 그 대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령 「헬리콥터」 한 편 한 구절 “이 무제한의 시간 위에서/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진흙도 없고 진창도 없고 미련도 없이”에는 일반적인 바깥의 세계(산, 강)와 관습화된 상징(진흙, 진창)과 내면의 감정(미련)이 같은 층위에서 결여의 대상으로 함께 쓰이고 있다. 결여 대상이 다양한 까닭은 그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를 그때마다 ‘없다’를 통해 드러내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1960년대 초반에 김수영은 혁명에 대해서 많이 말하였다. 그 혁명은 「육법전서와 혁명」에서 “4·26 혁명은 혁명이 될 수 없다”로, 「중용에 대하여」에서는 “오늘 아침의 때문에 혁명을 위해서/어차피 한마디 할 말이 있다/이것을 나는 나의 일기첩에서/찾을 수밖에 없었다//中庸은 여기에는 없다”로 형상화한다.

김수영은 또한 줄곧 돈과 휴식과 소리/말과 글쓰기와 또 ‘나’로 표현된 자기 자신의 부재에 대해 고민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부재를 느끼는 것은 ‘소리’이다. 이 ‘소리’는 뜻을 지닌 ‘말’의 형태로도, 소리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정적’의 형태로도 형상화한다. “내가 그놈들에게/언권을 줄 리가 없다”(「제임스 땡」), “아들아 나는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왜 없겠는가”(「VOGUE야」), “나의 최종점은 금지/과도처럼 요동하여/소리가 없고/비처럼 피부어/젖지 않는 것”(「공지의 날」), “파리의 소리 없는 소리처럼/나는 죽어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리라”(「파리와 더불어」), “그의 오류는 꽃이야/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의 수도의/한복판에서”(「H」), “그놈의 사진일랑 소리없이 떼어 치우고”(「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싯개로 하자」), “포플러나무며/소리 없이 나를 괴롭히는/그들은 신의 고문인인가”(「장시2」), “12, 3만 환이 소리 없이 들어가고”(「만용에게」), “새의 울음소리가 그 이전의 정적이 없이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우리들의 웃음」) 등은 소리의 부재와 관련된, 그래서 정적을 환기하는 구절들의 예들이다.

김수영이 인식하는 부재의 대상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구체적인 시분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김수영 시가 지닌 결여의 의미 또한 선명해지도록 돕는다. 총 85편 중 ‘없다’ 계열의 부정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편은 「이놈이 무엇이지?」와 「제임스 땡」이다. 「이놈이 무엇이지?」는 ‘없다’의 기본형과 활용형이 아홉 번 등장하고, 「제임스 땡」은 일곱 번 등장한

다. 이 중에서 분량이 비교적 짧은 「이놈이 무엇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행을 안 한다/가지고 있는/이데올로기도 없다/密謀는/전혀 없다/담배마저 안  
 피우는/날이 올지도 모른다/그때에는/성급해지면 아무 테나 재를 떠는/이 우주  
 의 폭력마저/없어질지도 모른다/靜寂이/필요 없다/그 이유를/말할 필요도 없다  
 /낙시질도/안 간다/假裝 파티에/가본 일도 없다/하물며/중립사상연구소에는/그  
 림자도 비친 일이 없다/뇌물은/물론 안 받았다/가지고 있는/시계도 없다/집에  
 도/몸에도/그러니까/the reason why/you don't get/a clock/or/a watch/마저/말  
 할 필요가 없다/집에도/몸에도/이놈이 무엇이지?

— 「이놈이 무엇이지?」(1961년)

시는 열네 개의 서술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없다’ 계열의 부정어는 “없다”가 여덟 번, “없어질지도 모른다”가 한 번, 총 아홉 번 등장한다. 나머지 서술부 다섯 개 중 “안 한다” “안 피우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안 간다” “안 받았다” 등 네 개의 서술부에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서술부가 “이놈이 무엇이지?”의 “무엇이지?”이다. 시는 ‘없다’ 계열과 ‘아니’ 계열의 부정어가 반복되며 마지막 질문으로 나아간다.

제목이기도 한 마지막 행 “이놈이 무엇이지?”가 지칭하는 대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거듭되는 부정의 화법을 거쳐 그는 시의 마지막에 단 한 번 이 질문을 한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에 없다. 무엇이 ‘이놈’인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부정을 거쳐 도래할 규정도 질문을 통해 얻게 되는 해답도 시에는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소되지 않은 많은 부정과 한 번의 질문이 시의 주된 정조를 이루게 된다. 인용시에서 나타나는 ‘없다’의 반복은 부정의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의 상황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여행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낙시질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이데올로기가 없고, 밀모(密謀)가 없으며, 우주의 폭력이 없어질 것이고, 정적이 없으며, 파티에 가본 일이 없고, 중립 사상 연구소에 가 본 일이 없고, 시계가 없다고 말한다. 인용시에서 그가 ‘아니’로 부정하는 것은 대개 취향과 관련되어 있고, 그가 ‘없다’로 부정하는 것은 대개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취향도 없고 세계관도 없는 인물이라고 강변한다. 물론

“뇌물” “密謀”와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을 부정하면서 그는 ‘투명한’ 인간이 된다. 이때의 투명함이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모두 드러내면서 생기는 특성을 뜻한다. 감추는 것이 없는 인간이 그가 거듭 부정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상이다. 그는 취향도 세계관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 그런데 취향과 세계관이 없는 이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그는 이와 관련해서 말한다. “이놈이 무엇이지?”. 이 마지막 질문은 존재는 있되 가치가 없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이놈’은 무기력한 시인 자신이다. 그는 부정한 뒤에 남은 결여의 상태를 대안으로 채우기보다는 무기력한 규정을 통해 결여의 상태를 강조한다. ‘없다’ 계열의 부정도 무엇을 도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정의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 김수영의 시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없다’ 계열의 부정어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별 부정어는 각각 김수영 시의 부정어 중 2위와 5위를 차지한다. ‘없다’ 계열의 부정어는 대상의 위상이나 성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가 부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수영 시에 나타난 ‘없다’의 부정어가 지목하는 결여 대상의 속성은 ‘소리’와 관련된 시어를 비롯해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놈이 무엇이지?」에서 보이는 ‘없다’ 계열의 부정어도 부정의 상황을 없애기 위해 쓴 말이 아니라, 부정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환기하기 위해 김수영의 시에 등장했다.

## V. ‘말다’/‘못하다’ 계열의 부정어

‘말다’와 ‘못하다’는 김수영 시의 부정어 중 각각 7/11위(말다2/말다1)와 8위(못하다)에 해당하는 시어들이다. ‘말다’에는 사전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하던 일이나 할 일을 그만두다’(말다1)이며, 둘째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대로 끝내 실현됨을 나타내는 말’(말다2)이다. ‘못하다’는 사전적으로 ‘서로 견주어서 질·양·정도가 다른 것보다 낮다’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거나 할 능력이 없다’이다. 그런데 ‘못하다’의 경우 김수영은 맞춤법 규정에 의하면 ‘못하다’로 써야 하는 구절까지도 붙여 썼다. 이때의 ‘못’의 사전적인 뜻은 ‘할 수 없다거나, 말리거나, 잘 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김수영의 시가



연구 대상인 이 글에서는 '못하다'와 '못 하다'를 함께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로 설정했다. '말다'와 '못하다' 모두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말다'와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는 수준 미달이나 행위의 중단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말다'의 경우 행위의 지속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행위의 중단을 의미한다. 전제되어 있는 대상이 설정된 목표라면 그 목표 달성의 중단은 규정된 대상의 위상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글에서 규정한 부정의 뜻에 포함된다. '못하다' 계열의 시어들도 마찬가지이다. 설정된 목표가 전제된 대상이 되고 그것의 수준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가 나타난다. 전제된 위상을 거역한다는 의미에서 '못하다' 계열의 어휘도 부정어라 할 수 있다.

한편 '말다' 계열의 부정어는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와 견줘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된 흔적이 보인다. '말다'에는 그것이 쓰인 맥락과는 별도로 어휘 자체 내에 주체 스스로 행위를 중단시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못하다'에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수준에 못 미친 사정에 개인의 의지 이외에 다른 압력이 감지된다.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가 '아니' 계열의 부정어와 변별되는 지점도 여기일 것이다.

순위	시어	빈도수/ 편수	출전
7	말다2	36/18	「기자의 정열」(3), 「눈(1961)」(2), 「도취의 피안」(2), 「등나무」(1), 「만시지탄은 있지만」(1), 「바뀌어진 지평선」(2), 「봄 밤」(8), 「철사의 알리바이」(1), 「性」(1), 「엔카운터 誌」(1), 「웃음」(1), 「육법전서와 혁명」(1), 「이 한 국문학사」(6), 「잔인의 초」(1), 「잔인의 초」(1), 「전화 이야기」(1), 「조국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1), 「나의 가족」(1)
11	말다1	9/8	「美濃印札紙」(1),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1), 「시골 선물」(1), 「아픈 몸이」(1), 「육법전서와 혁명」(1),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2), 「피곤한 하루의 나머지 시간」(1), 「후란넬 저고리」(1)
총계	'말다'	45/25	

'말다' 계열의 부정어는 김수영의 시 25편에 45번 등장한다. '말다1'은 8편에 9번, '말다2'는 18편에 36번 등장한다. 등장 편수를 더한 결과는 산술적으로 26편

이다. 하지만 「육법전서와 혁명」의 경우 ‘말다1’과 ‘말다2’가 동시에 쓰였다. 중복된 횟수를 줄이면 ‘말다’가 등장한 시는 총 25편이 된다.<sup>10)</sup> 한편 ‘말다2’ 중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되다’의 뜻을 지녔을 경우에는 부정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함께 숭배하고 마는 것이”(「누이야 장하고나」)에서의 “마는”은 숭배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숭배를 완료하는 의미로 쓰인다. 실행의 중단이 아니라 실행의 완료를 뜻하는 이 ‘말다2’의 두 번째 뜻은 김수영의 시에서 총 8편에 걸쳐 9번 등장한다.<sup>11)</sup>

‘말다’ 계열의 부정어가 중지하거나 중지를 요청하는 대상들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부분이 눈에 띈다. 첫째는 “이것이 편지를 쓰다 만 내력이요—꼭 막히는 구려”(「美濃印札紙」)나 “시를 쓰다 말고 코를 풀다 말고”(「의자가 많아서 걸린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쓰기’와 관련해서이다. ‘말다’를 글쓰기의 중단에 할애하며 김수영은 글쓰는 자의 자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둘째는 관습이나 규범의 위반이나 준수와 관련된 경우이다. ‘말다’ 계열의 부정어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규범을 지켰을 때에는 절망감이, 규범을 어겼을 때에는 자긍심이 보인다. 주로 ‘비웃거나 욕하지 말라’와 같은 요청의 형식을 띠면서 나타나는데, 가령 글쓰기와도 관련 있는 “나의 노래가 거치럽게 되는 것을 욕하지 마라!”(「조국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의 구절은 ‘거친 노래’의 불온성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한 생활이 비겁하다고 경멸하지 말아라”(「바뀌어진 지평선」)는 반대로 규범을 지키는 삶에 대한 절망감이 배어 있

10) 「육법전서와 혁명」의 경우 ‘말다1’에 해당하는 구절은 “불법을 해도 될까 말까 한/혁명을—”이며, ‘말다2’에 해당하는 구절은 “그보다도 창자가 더 메마른 저들은/더 이상 속이지 말아라”이다.

11) 김수영의 시에서 행위의 완료를 뜻하는 ‘말다2’가 쓰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너까지도 다 함께 숭배하고 마는 것이/숭배할 줄 아는 것이/나의 인내이니까”(「누이야 장하고나」), “그래서 나는 그 사진을 10년 만에 곰곰이 正視하면서/이내 거부해서 너의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다”(「누이야 장하고나」), “우리는 지금 동양의 諷刺를 그의 機體 안에서 느끼고야 만다”(「헬리콥터」), “지독하게 속이면 내가 곧 속고 만다”(「性」), “나는 자유를 찾아서 포로수용소에 온 것이고/자유를 찾기 위하여 有刺鐵網을 탈출하려는 어리석은 동물이 되고 말았다”(「조국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시골이라고 무관하게 생각하고 쓰고 간 것인데 결국은 잃어버리고 말았다”(「시골 선물」), “큰 아릅드리나무에 박힌 웅이처럼 너는 내가 한 신문기사를 매일 아침 계시관 위에서 찾아보는 버릇이 너도 모르게 어느덧 생기고 말았다”(「기자의 정열」),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그 방을 생각하며」), “聖俗이 같다는 원효대사가/텔레비에 텔레비에 들어오고 말았다”(「원효대사—텔레비전을 보면서」)

는 예라 할 수 있다. 불온성에 대한 자긍심이 가장 잘 나타난 시는 '말다'가 6번 등장하는 「이 한국문학사」이다. 이때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가 발견한 한국문학사를 긍정하는 태도이다. 한국문학사는 당시에 서구와 견줘 미개하고 낙후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를 옹호한다는 것은 곧 관습화된 인식을 부정한다는 뜻을 지닌다.<sup>12)</sup> 셋째는 '소리'와 관련해서이다. '없다' 계열의 부정어에서도 '소리'가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침묵과 고요를 중시하는 김수영의 태도를 이 '말다' 계열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소리 내지 말라' 내지는 '말하지 말라'와 같은 구문 형식으로 문면에 나타난다. “너의 날개 소리를 남기지 말고”(「도취의 피안」), “이 문이 열리거든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봐라”(「잔인의 초」), “벌벌 떨고 있는/나의 귀에다 너의 얇은 울음소리를 남기지 말아라”(「도취의 피안」) “괴로운 설사가 끝나거든 입을 다물어라 누가/보았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일절 말하지 말아라/그것이 우리의 증명이다”(「설사의 알리바이」) 등은 고요와 침묵이 환기되고 있는 '말다' 계열의 부정어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헉헉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오오 봄이여//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기적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오오 인생이여//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 인의 생활과/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질제여/나의 귀여운 아들이여/오오 나의 靈感이여

— 「봄밤」(1957년)

김수영의 시에서 '말다' 계열의 부정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는 1957년 작

12) 「이 한국문학사」에서 위의 논의에 해당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덤핑 출판사의 일을 하는 무의식 대중을 웃지 마라/지극히 시시한 이 발견을 웃지 마라/비로소 충만한 이 한국문학사를 웃지 마라/저들의 고요한 숨길을 웃지 마라/저들의 무서운 방탕을 웃지 마라/이 무서운 낭비의 아들들을 웃지 마라”(「이 한국문학사」)

「봄밤」이다. 여기에서 ‘말다’는 “말라”라는 명령의 형식으로 여덟 번 나타나는데, 각 연의 전반부 진술의 서술어로 등장하며 리듬을 형성하는 한편, 각각 ‘서둘다’ 뒤에 여섯 번, ‘바라다’ ‘당황하다’ 뒤에 한 번씩 나오며 그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이 금지의 명령은 다짐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가 다짐하는 것은 선부른 욕망의 발산이다.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서둘고 바라는 행위의 원인은 강한 욕망에 있으며, 당황하는 마음의 원인도 강한 욕망의 좌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대안은 제시되지 않는다. ‘-말라’ 뒤에는 ‘-하라’라는 형식의 발화가 없다. 그 대신 그는 곧바로 감탄형의 발화를 수행한다. 각 연의 마지막은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오오 몸이여”(1연), “나의 빛이여/오오 인생이여”(2연), “절제여/나의 귀여운 아들이여/오오 나의 靈感이여” 등의 명사형 어미로 제시되어 있다. 3연의 “절제”와 같은 말이 대안의 의미로 읽히기는 한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절제하라’라는 명령형의 용언이 아닌 ‘절제여’라는 명사형으로 제시하였다. 부정의 발화와 대안의 발화가 짝을 이루는 것을 피하면서, 부정의 상태를 지속하는 김수영 특유의 부정어의 기능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순위	시어	빈도수/ 편수	출전
8	못하다	32/23	「거대한 뿌리」(2),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1), 「구슬픈 육체」(1), 「국립도서관」(1), 「나비의 무덤」(1), 「네이팜 탄」(1), 「누이의 방」(1), 「달나라의 장난」(1), 「돈」(1), 「말(1958)」(1), 「말복」(2), 「付託」(2), 「수난로」(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4),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1), 「이[飜]」(2), 「이혼 취소」(1), 「자」(1), 「조국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동지들에게」(2), 「토끼」(1), 「과자마 바람으로」(1), 「풀의 영상」(2), 「헬리콥터」(1)
총계	‘못하다’	38/23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는 김수영의 시 23편에 32번 등장한다. ‘못하다’는 수준 미달이라는 첫 번째 뜻과 행위의 중단이라는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경우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외부 상황의 개입에 의한 행위의 중단을 뜻한다. 물론 자신의 능력 부족이 ‘못하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능력은 자발적으로 갖춘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진 것을 뜻한다. 의지가 개입한 ‘안 하다’나

‘말다’와 견주었을 때 ‘못하다’가 지닌 수동성은 도드라진다. 앞서 확인했듯이 김수영의 시에는 의지가 개입한 부정어 빈도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많다. 이 점에서 김수영의 부정성은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가 상정하는 전체들, 부정하는 대상들도 ‘말다’ 계열의 부정어처럼 대개 규범이나 관습의 이탈 또는 준수와 관련되어 있다. 가령 “외출을 못하고 자기의 영토를 지킨다”(「수난로」)와 같은 경우 ‘못하다’의 대상인 “외출”은 “영토를 지”키는 것과 대비되어 위반과 자유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타성같이 습관같이/그저그저 쉬쉬하면서/할말도 다 못하고”(「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의 “할말”은 “타성”이나 “습관”과 대비되어 위반과 불온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명령의 형식으로 타인의 행동을 종용하는 ‘말다’의 경우는 규범의 준수와 규범의 이탈 양 측면을 오가며 자유로움과 괴로움을 드러냈던 반면, ‘못하다’는 주로 규범을 준수하는 쪽에서의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못하다’가 지닌 중단의 의미는 자신의 행위나 능력, 또는 자신과 동일시된 대상의 행위나 능력과 관련된다. 즉 김수영의 시에는 규범의 굴레 내에 있으면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슬픔이 이 부정어로 곧잘 환기된다는 것이다. “나는 한번도 아버지의/수염을 바로는 보지/못하였다”(「이[飊]」)의 아버지가 상정하는 규율의 세계를 정면으로 대적하지 못할 때 생기는 슬픔이 이와 같다. 그것은 곧 규범과 관습을 이탈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노여움으로 이어진다. “나의 <말>을 하지 못하는 나를 미워하였다”(「말」)는 이 노여움을 직접 표현한 예이다.

그가 규율과 관습 속에 있으면서 특히 답답하게 느꼈던 경우는 말하기(시쓰기)와 관련되었을 때이다. 앞의 예에서도 그렇고, “호령 하나 못하니/이렇게 돼서야 그만이지/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파자마 바람으로」), “지금 불란서 소설을 읽으면서 아직도 말하지/못한 한 가지 말—정치 의견의 우리말이/생각이 안 난다”(「거짓말의 여운 속에서」), “간신히 떠드는 목소리로밖에는 못해왔기 때문이다”(「헬리콥터」) 등도 말과 관련한 ‘못하다’ 계열의 예들이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한번 정정당당하게/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리 세 번씩 네 번씩/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이발쟁이에게/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정말 얼마큼 작으나...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1965년) 부분

김수영의 시에서 ‘못하다’가 한 편에 중복된 수치는 다른 계열의 부정어보다 그리 높지 않다. 가장 많이 중복된 수치는 인용시 1965년작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4회 정도이다. 이 시에서 ‘못하다’는 연결어미의 활용 형태 “못하고”로 반복되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제일 마지막 연 6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시에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책의 감정이 주된 정조를 이루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큰 일’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월남파병에 반대하는” 것들이다. 그는 스스로 “자유를 이행”하는 것과 같은 이 ‘큰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는 기껏해야 야경꾼이 내는 소음, 비싼 설령탕 가격 등에 분개하고 반항할 뿐이다. “못하고”로 설정된 ‘작은 일’의 범주 안에서 그는 괴로워한다. 이 영역은 “못하고”의 반복을 통해 점점 좁아진다. 언론의 자유와 설령탕 값이 상징하는 큰 일과 작은 일의 영역 설정은 보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작은 일의 영역을 더욱 작게 하여 자신의 영역 설정을 특수한 것으로 만든다. “이발쟁이” “땅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 등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조그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을 ‘반항하지 못하는’ 영역에 배치하며, 그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더욱 웅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반항의 형식만 남고 반항의 대상은 거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그는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고 했다. 이 비켜섬은 적어도 현재의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얼마큼 작으나/정말 얼마큼 작으나”의 마무리는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괴로움이 표현된 예이다. 이 괴로움은 어느 부정어보다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그는 반항과 불온과 위반을 늘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영웅이나 혁명가라고 하기는 힘들다. 비중은 작지만, 이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는 그의 정직한 소시민

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말다'/'못하다' 계열의 부정어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별 부정어는 김수영 시의 부정어에서 각각 7위와 8위와 11위를 차지한다. '말다'와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는 수준 미달이나 행위의 중단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이 미달과 중단의 배경에는 '말다'의 경우 화자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으나, '못하다'의 경우 자신의 의지 이외의 다른 압력이 감지된다. 김수영의 시에서 '말다' 계열의 부정어는 규범이나 관습을 준수하거나 위반하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했다. 규범을 지켰을 때에는 절망감이, 규범을 어겼을 때에는 자긍심이 보였다.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의 경우 김수영은 주로 규범을 준수하는 쪽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반항과 불온과 위반을 늘 생각하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소시민으로서의 불온과 위반이었다.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는 이 점을 보여준다. '말다' 계열의 부정어가 지닌 특성은 「봄밤」이,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가 지닌 특성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가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 VI. 결론

지금까지 김수영 시에 나타난 부정어의 유형을 나누고 특성을 도출해 보았다. 김수영의 시 176편에 담겨 있는 모든 시어에서 40개의 부정어를 추출했으며, 이중 김수영 시에서 10회 이상 출현한 부정어를 크게 세 가지 계열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김수영 시의 부정어는 '아니' 계열의 부정어, '없다' 계열의 부정어, '말다'/'못하다' 계열의 부정어 순으로 나뉘었다. 이들은 차례로 단순한 부정과 부재의 인식과 행위의 중단을 뜻한다.

'아니' 계열의 부정어는 부정 표현의 기본적인 요소이자 김수영의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정어이다. 여기에서 김수영은 이미 전제된 것을 부정하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속되는 부정의 상태는 자유로움이며 부정의 근거는 현대성이라는 것을 그는 시에서 말하였다. '없다' 계열의 부정어는 대상의 부재를 뜻하면서 김수영 시에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부정어이다. 김수영은 '없다' 계열의 부정어가 나타난 시에서 다양한 대상의 부재를 시대에 따라 그려냈다. 그는 부재

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환기하기 위해서 이 ‘없다’ 계열의 부정어를 썼다.

‘말다’/‘못하다’ 계열의 부정어는 수준 미달이나 행위의 중단을 뜻하면서 김수영 시에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부정어이다. 화자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말다’와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로 나뉘었다. 이들은 규범이나 관습을 준수하거나 위반하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했는데, 규범을 지켰을 때에는 절망감이, 규범을 어겼을 때에는 자긍심이 시에 나타났다. 관습을 타개하지 못하는 쪽에서의 괴로움이 주로 보인 ‘못하다’ 계열의 부정어의 경우, 규범의 안쪽에서 생활하는 소시민으로서의 모습과, 불온과 위반에 대한 그의 욕망을 보여주었다.

어떤 부정어를 취하더라도 김수영 시에 나타난 부정어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현대 미학의 부정성과도 상통하는 특성이다. 관습과 규범의 안쪽에서 드러내는 불온과 위반의 욕망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현대인의 정직한 운명임을 김수영 시의 부정어는 보여주는 것이다.

## 참고문헌

『민중엠펬스국어사전』. 민중서림, 200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stdweb2.korean.go.kr/main.jsp).

《서정시학》 26호. 2005년 여름호.

《창작과비평》 140호. 2008년 여름호.

강웅식, 「김수영 시론 연구: ‘현대성’과 ‘부정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1, 2003. 8, 163~197쪽.

게오르크 루카치(지)/반성완(역), 『소설의 이론』. 서울: 심설당, 1985.

김수영, 『김수영 육필시집 전집-金洙映 肉筆詩稿 全集』. 이영준 편, 서울: 민음사, 2009.

김수영, 『김수영 전집 1 시』. 서울: 민음사, 1981.

김수영, 『김수영 전집 1 시』. 서울: 민음사, 2003.

김수영, 『김수영 전집 2 산문』. 서울: 민음사, 1981.



장만호, 「김수영 시의 변증법적 양상: 4·19와 5·16의 시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0, 2004, 265~292쪽.

장석원, 「김수영 시의 '새로움' 연구: 전위 의식과 부정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8, 2003, 233~270쪽.

장석원, 「김수영 시의 인칭대명사 연구: '나'와 '너'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15, 2006, 207~237쪽.

주영중, 「김수영시에 나타난 시각적 경험의 발현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13, 2006, 277~312쪽.

###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김수영 시에 나타난 시어를 대상으로 부정어를 선정하고 계량화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김수영의 모든 시어 중 40개의 부정어를 선정한 뒤, 10회 이상 출현한 부정어를 크게 세 가지 계열로 나누었다. 이들은 단순한 거절이나 부재의 인식이나 행위의 중단을 뜻하면서 각 영역에서 김수영의 욕망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떤 부정어를 취하더라도 김수영 시에 나타난 부정어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속되는 부정의 상태는 자유로움이며 부정의 근거는 현대성이라는 것을 그는 시에서 말하였다.

- 투고일 : 2009. 7. 6.      ● 수정일 : 2009. 8. 28.      ● 게재확정일 : 2009. 9. 2.
- 주제어(keyword) : 김수영(Kim Sooyoung), 부정성(negativity), 부정어(a negative).